

투데이 칼럼

‘인천강하구 습지보호지역’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습지’의 사전적인 의미는 ‘물기가 축축한 땅’을 지칭하는 말로 간단하게 말하면 물을 담고 있는 땅이다.

일반적으로 습지는 물에 따라 동식물의 생활과 주변 환경이 결정되는 곳이며 일정한 기간 이상 물에 잠겨 있거나 젖어 있는 지역으로, 우리나라 습지보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습지는 ‘담수(민물)·기수(바닷물과 민물이 섞여 염분은 적은 물) 또는 염수(바닷물)가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그 표면을 덮고 있는 지역으로서 내륙습지 및 연안습지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습지는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곳에서 많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홍수조절과 해안선의 안정화 및 폭풍방지, 영양분과 먹이의 공급, 기후조절, 수질정화, 생물다양성 유지는 물론 우리에게 필요한 음식과 딸감, 사료 등 생활용품도 제공한다.

또한 습지가 지닌 다양한 동·식물과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은 자연교육과 생태관광을 통해 경제적 이익도 제공해 주면서 동식물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1900년대 이후 산업화로 인해 생



황민안

고창군 생물권보전사업소 생태지질팀장

물 다양성 감소에 대한 위기의식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생물자원을 기반으로 한 산업이 발전하고 생물 다양성 보전의 필요성과 생물자원의 이용 가치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

이에,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국제적 대책과 관련 국가 간의 권리, 의무 관계를 규정하기 위해 국제협약인 생물다양성 협약(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이 체결되었고 우리나라는 1994년 10월 3일에 154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여 생물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2010년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제10차 CBD당사국 총회에서는 2020년까지 당사국별로 보호지역 확대를 권고했는데 우리나라는 육상 17% 이상을 보호토록 권고하고 있지

만, 현재 우리나라 보호지역은 15.5%로 정부에서는 목표달성을 위해 보호지역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10월 24일 고창 인천강하구가 환경부고시 제 2018-165호로 국내 25번째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면적 722,000㎡)됐다. 이로써 고창군은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고창갯벌(107.12.31), 환경부가 지정한 운곡습지(11.3.14)를 포함해 국내·외적으로 뛰어난 생태자원의 우수성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인천강하구는 멸종위기생물 I급인 노랑부리백로 등 법적보호종을 포함한 총754종의 생물종이 서식하고 있는 자연원형이 잘 보전된 서해안 열린 하구다. 멸종위기생물 등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인천강하구는

연안(갯벌)-하구(인천강)-육상(운곡습지) 생태계를 연결하는 국내 첫 모범사례(습지생태축)다.

기존에 국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하류 고창갯벌(해양수산부), 상류 운곡습지(환경부)와의 전이지역(연결통로)으로서 생태적 통합 관리모델 구축을 위하여 국가 차원에서 보전·관리해야 할 보호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앞으로 고창군은 인천강하구에 대하여 환경부, 지역주민, 민간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체계적인 보전·관리 및 현명한 이용 등을 담은 ‘인천강하구 습지보전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습지보호지역 내 사유지를 단계적으로 매입하여 자연상태의 습지생태축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복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고인돌과 운곡습지, 선운산도립공원, 고창갯벌 등 지역 자원과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생태관광 활성화를 통해 ‘다시 치솟는 한반도 첫수’도 고창 발전에 기여하는 모범사례로 만들어갈 것이다.

자연이 있기에 우리는 살아가나. 자연이 없다면 우리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없다.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지키며 그 안에서 조화롭게 행복을 만들어가는 고창의 내일이 기대되는 이유다.

사설

전북은 지역발전에 매진해야

정부가 동서 철도 건설과 관련 해 언급한 것을 다시 돌켜 보는 기분이 쓸쓸하다. 그게 실속이 없는 덕담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어서이다. 매년 운만 띄우게 해서는 지역 발전이 될 턱이 없다. 도지사와 고위 관계자들의 의식 속에 지역발전이 항상 중심 주제가 돼야 하는 이유이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지역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다. 시류에 따라 다른 것들이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다가 사라지길 반복하고 있는데 비탄적이지 않다. 그 어느 때고 지역 발전이 항상 최고 관심사가 돼야 한다.

지역이 예전과 달리 조금씩 발전하고 있다고는 하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체 비교일 뿐이다. 다른 광역 시도에 비하면 매우 낙후돼 있음을 알아야 한다.

전북도는 잘 생각해야 한다. 지역 발전을 항상 중심 주제로 삼아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지역 발전을 도모한다고 할 수 없다. 예전에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반복하거나 발전 보폭이라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

다른 지역이 보여주고 있는 것에 비하면 우리 지역의 발전은 미미하기 이를데 없다.

지역의 미래를 이끌 대형 국책 사업들을 밀고 나가야 한다. 새만금 사업도 그렇지만 도내 대형 프로젝트 사업들이 거북이 걸음을 보이고 있음은 답답한 일이다.

전북도 고위 관계자들의 책임이 막중하다. 지역의 발전을 견인하는 이들은 비상한 각오를 다져야 한다. 지역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자부심만으로는 2% 부족하다. 더 뛰어야 한다.

더 뛰지 않으면 도민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없다. 지난 날 여러 번 지적해 왔거나 무슨 일이고 진취적인 행보가 소망스럽다.

전북도는 지역의 미래를 약속하고 있는 사업들이 도내에 과연 몇 개나 되는 지 생각해볼 일이다. 새만금사업 말고는 식품클러스터 사업과 탄소단지 조성 사업 정도가 고작이니 말이다. 그러므로 전북도는 저변에 공표했던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20년까지 1조6천억 원을 투자해 우리 지역을 국내 탄소산업의 중심지로 키우겠다고 했던 거 말이다.

그걸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평소 정부측 관계자들을 상대로 부단히 뛰어야 한다. 바로 지금이 그렇게 할 때이다.

고용 안정 문제 손놓고 있어서는 곤란하다

국내 고용 실태의 불빛이 점점 침하다. 인적 자원은 세계 2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에 걸맞지 않게 고인이 깊어지고 있다.풀어야 할 실업자는 늘고 늘어갈 일자리라는 오히려 줄고 있는 까닭이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전북의 경우가 더욱 특상하다. 고용률이 전국에서 최악이라는 성적표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전북도는 이 부끄러운 기록을 과연 언제까지 고수할 것인가. 매년 반복되는 최악의 성적표 앞에서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지역의 청년 고용 열기가 아직도 미지근하기에 하는 말이다. 지역의 고용열기가 미지근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외환위기 이후 청년실업률이 가장 높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감각이 둔한 탓이다. 전북도는 스스로 모범을 보이는 가운데 각 시군 지자체를 독려해 고용 열기를 뜨겁게 해야 한다.

전북도는 도내 많은 젊은이들이 아직도 미취업자로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일지리의 질이 예전보다 못하더라도 괜찮은 일자리 창출이 안되고 있는 현실이 답답하다.

고용 현실이 전국에서도 밀바닥 수준이라는 지적이 괜한 것이 아니다. 전북도는 도내 청년 실업의 현실을 총체적으로 보아야 한다. 실제로는 전북도가 파악하고 있는 그 이상으로 심각하지 않느냐는 물음이다. 일자리 때문에 힘들어 하는 도내 청년들은 울분을 토로하고 있다. 기회만 주어진다면 전북 지역을 이여 떠나버리고 싶다고 말이다.

전북도는 비정규 일자리를 두고 불안해 하는 젊은이들을 생각해 야 한다. 다시 또 말하거나 청년 고용은 한두 번 시도해보고 그만 둘 게 아니다.

그리고 공공기업들의 협조도 필수적이다.

전북의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거처를 옮기고 있는 세월이 그 얼마나 계속돼야 하는가. 전북도는 실업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부끄러운 성적표 앞에서 이마를 짚고 생각이 많아져야 한다.

독자재언

사이버성폭력 근절해야 할 때

최근 언론에서 라벤지포르노(헤어핀 연인에게 보복하기 위해 유포하는 성적 사진이나 영상 콘텐츠)에 대해 이슈화가 되고 있는 만큼 국민들의 불안감도 증가하고 있어, 경찰에서는 지난 8월 13일부터 11월 24일 100일간 사이버성폭력 사범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범죄 예방에 힘쓰고 있다. “사이버성폭력”이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한 불법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사이버 공간에 유포하는 범죄로 불법 촬영 행위자뿐만 아니라 불법촬영물이 유통되는 웹하드, 음란 사이트, 커뮤니티 사이트 등 모두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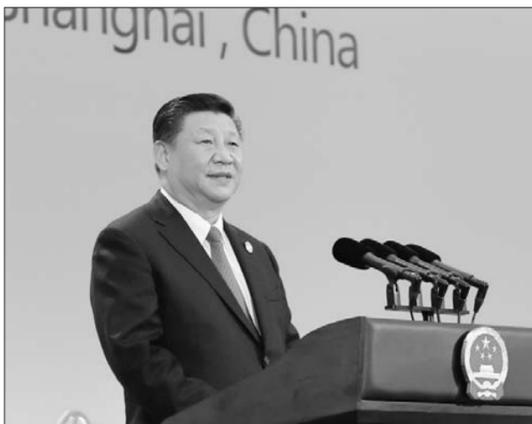
단속 대상이다. 사이버성폭력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피해가 계속되어 2차 피해까지도 발생하는 심각한 범죄이다. 또한 경찰은 2차 피해를 방지하고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공조해 불법 촬영물에 대한 삭제, 차단지연, 원본의 압수·폐기, 유통 사이트 및 플랫폼에 대한 폐쇄를 진행하고, 체계적인 신변보호로 피해자 안전 확보에도 노력하고 있다.

불법촬영 뿐만 아니라 이를 유포하고 유통하는 것도 명백한 범죄임을 명시하고, 피해자들이 더 이상 2차 피해를 입는 일은 없어야 한다.

구보진 진안경찰서 경무과 순경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시진핑 “시장개방 확대·지재권 보호 강화” 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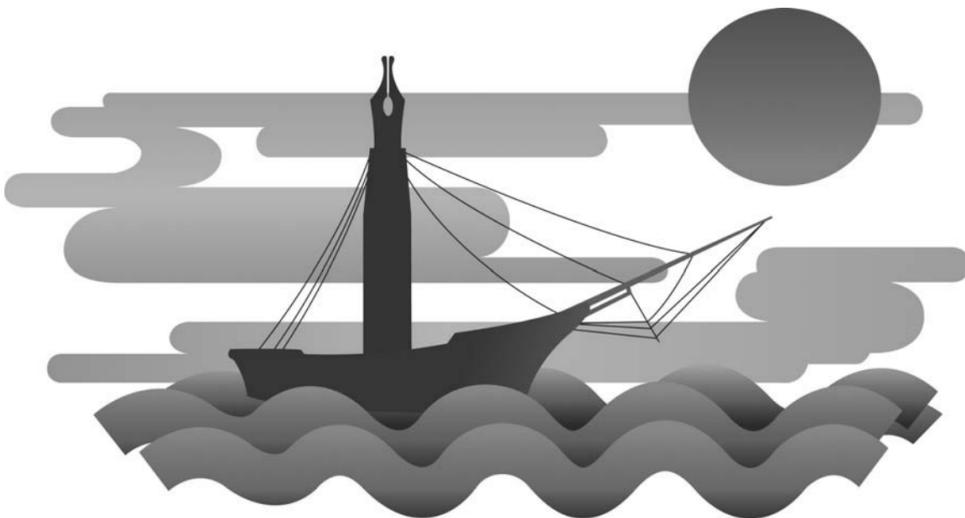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5일 상하이에서 개막한 제1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CIE)에서 연설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이날 중국이 발전을 위한 다각적·쌍무적 협력을 계속할 것이며 더 많은 개방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승주빌딩 4층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